

## 의대생들의 한의학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 조사

허남우<sup>1)</sup> · 정승아<sup>1)</sup> · 김선재<sup>1)</sup> · 목나래<sup>1)</sup> · 박해원<sup>1)</sup> · 신현규<sup>2)\*</sup>

<sup>1)</sup>동국대학교 한의학과, <sup>2)</sup>한국한의학연구원

## Attitude and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Korean Traditional Medicine Diagnosis and Treatment

Nam-Woo Huh<sup>1)</sup>, Seung-A Jeong<sup>1)</sup>, Sun-Jae Kim<sup>1)</sup>, Na-Rae Mok<sup>1)</sup>

Hae-Won Park<sup>1)</sup>, Hyeun-Kyoo Shin<sup>2)\*</sup>

<sup>1)</sup>Department of Oriental medicine Dongguck university

<sup>2)</sup>Herbal Medicine EBM Research Tea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aimed to facilitate mutual comprehension between Western an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KM) by analyzing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traditional medical prescription and treatment such as herbal medicines and acupuncture.

**Methods :** We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medical school students of four medical schools from April through May 2009, and analyzed 208 cases responded.

**Results :**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medical school students took knowledge of traditional medicine from TV programs and on the Web in general. They thought they had considerable traditional medical knowledge but did not almost understand for professional contents. Regardless of some positive recognition for traditional herbal medicine, negative perspectives were more common and its safety and efficacy on the drug reference were considered as a major reason. On the other hand, recognition on acupuncture was comparatively positive. Scientific data for both herbal medicine and acupuncture are lacking in reality but the attitude only for acupuncture was different. Of the survey respondents, 57.8% had negative attitude against diagnostic methods of TKM and 59.1% opposed to the usage of modern medical equipments by TKM doctors. With regard to the future position of TKM, they tacitly approved that TKM would be absorbed into the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 and importance of

· 접수 : 2013년 3월 12일 · 수정접수 : 2013년 4월 10일 · 채택 : 2013년 4월 22일

\* 교신저자 : 신현규, 대전시 유성구 진민동 461-2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기초연구그룹  
전화 : 042-868-9464, 팩스 : 042-868-9471, 전자우편 : hkshin@kiom.re.kr

TKM objectification, followed by Government's support.

**Conclusions :** Medical school students neither affirm nor deny TKM as a whole but the state of awareness for each item was similar to the physician. In terms of TKM its internal and external innovation would be required to continuously establish objectification of TKM prescription and scientific research on treatment technology.

---

**Key words :**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raditional Herbal Medicine, Acupuncture.

---

## I. 서론

1884년 Allen이 제중원을 설립하면서 도입된 서양의학은 급성장하여 뿌리를 내렸고,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한의사제도가 법제화되어 의료제도가 양·한의학으로 양분화되었다<sup>1)</sup>. 그 후 60년이 되었지만, 한국의 지식층인 한의계와 양의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5차 회의에서 의사의 근육내 자극요법(IMS: 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갈등의 중재가 쉽지 않고<sup>2)</sup>, 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의 사용에 대해 임산부에게 한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대한한 의사 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sup>3)</sup>. 또 학생단체인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도 발표하였다<sup>4)</sup>. 이렇게 상호 조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법률적인 판단<sup>5)</sup>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체계를 책임진 의료계는 의료일원화, 한의계는 한·양방 협진을 문제의 해결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연구결과는 결국 각자의 원칙에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의사들 대상으로

한 조사<sup>1)</sup>에서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79.2%가 찬성하였으며, 한의사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한·양방협진 형태에 96.0%가 찬성하였다<sup>6)</sup>. 이러한 의사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본다면, 의학과 한의학의 관계는 상호 교류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한의대생과 같이 고등학교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의대생의 경우, 기존 의사들과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7)</sup>.

본 조사는 장래 의사되기 이전인 의대생들이, 의학교육 과정 중에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동국대,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충북대 의과대학 예과 2학년부터 본과 3학년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고, 이중 208명으로부터 설문(회수율 68.6%)을 받아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으로는 의대생들의 한의학 지식 정도 및 치료 경험, 한의학의 진단과 치료(한약, 침)에 대한 인식, 그 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양방 협진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고, 끝으로 의대생이 생각하는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설문을 하였다(Table 1).

Table 1. Gender and distribution

학교	학년 (대상자수)	응답자수 (%)
대구가톨릭대학교	예과 2학년 (40명)	13명 (32.5)
동국대학교	본과 1학년 (49명)	43명 (87.6)
대구가톨릭대학교	본과 1학년 (40명)	28명 (70.0)
계명대학교	본과 1학년 (76명)	44명 (57.9)
충북대학교	본과 2학년 (49명)	36명 (73.5)
동국대학교	본과 3학년 (49명)	44명 (89.8)
합계	303명	208명 (68.6)

### III. 연구결과

#### 1. 한의학 지식 경험 경로

의대생으로서 한의학 관련 지식을 접하는 경로는 TV 40.5%, 인터넷 27.3%, 강의 10.6%, 책 5.7%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경로 15.9%에는 지인, 한의원, 라디오 등이 있었다. 평소에 많이 접하게 되는 TV나 인터넷이 한의학 지식을 경험하는 주요 수단임을 알 수 있다(구간내 복수응답)(Table 2).

Table 2. TKM knowledge acquisition paths of medical school students

경험 수단	TV	인터넷	강의	책	기타	합계
응답자 수 (%)	92 (40.5)	62 (27.3)	24 (10.6)	13 (5.7)	36 (15.9)	227 (100.0)

#### 2. 한의학 지식 정도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얻어진 한의학 지식의 정도를 스스로 ‘보통이다’라고 생각한 경우는 36.9%, ‘거의 없다’가 34.9%, ‘조금 있다’는 20.4%, ‘전혀 없다’ 4.4%, ‘많다’가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의학의 기초 이론(음양오행론, 장상론, 사상의학, 경락학, 본초학 등)에

대한 전문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의 없다’ 52.4%, ‘전혀 없다’ 18.9%, ‘보통이다’ 16.5%, ‘조금 있다’ 11.2%, ‘많다’ 1.0% 순으로 대답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한의학 지식을 안다는 정도와 실제 한의학의 기초 이론에 대한 지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Table 3. TKM knowledge acquisition levels of medical school students

단위: 명(%)

지식 정도	전혀 없다	거의 없다	보통이다	조금 있다	많다	합계
한의학 지식	9 (4.4)	72 (34.9)	76 (36.9)	42 (20.4)	7 (3.4)	206 (100.0)
한의학 기초 이론	39 (18.9)	108 (52.4)	34 (16.5)	23 (11.2)	2 (1.0)	206 (100.0)

#### 3. 한방 치료에 대한 경험

한방치료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가 170명(81.7%), ‘없다’가 38명(18.3%)로 나타났다. 한방치료 경험으로는 침, 뜸, 부항 47.0%, 한약 46.5%로 거의 주를 이루었으며, 한방물리치료도 6.5%를 차지했다. 한방치료를 받아본 81.7%의 의대생 중 치료효과를 ‘모르겠다’가 42.4%, ‘있

었다' 40.0%, '없었다' 17.6% 순으로 대답했다. 따라서 치료효과에 대한 경험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비슷하였다(구간내 복수응답)(Table 4).

Table 4. TKM treatment experiences of medical school students

치료 내용	침, 뜸, 부항	한약	한방물리 치료	합계
응답자 수 (%)	122 (47.0)	121 (46.5)	17 (6.5)	260 (100.0)
치료 효과	예	아니오	모르겠다	합계
응답자 수 (%)	68 (40.0)	30 (17.6)	72 (42.4)	170 (100.0)

#### 4.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인식

한의학 진단(맥진, 체질별 진단 등)에 대해서는 진단법으로 '인정한다'가 42.2%, '인정하지 않는다'가 57.8%로 나타나 부정적 경향이 높았다.

진단법으로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가 45.4%, '맞춤 진단이 가능하다'가 37.2%, '사람이 직접 진단한다' 9.3%, '기타' 8.1% 순으로 선택했다. 진단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체질진단을 불

신한다'가 49.3%, '오차가 크다'가 40.6%, '전체 진단은 무의미한 기준이다'가 5.8%, '기타' 4.3% 순으로 선택했다(구간내 복수 응답)(Table 5).

#### 5.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X-ray, CT, MRI)사용에 대해서 59.1%가 반대, 40.9%가 찬성으로 답하였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가 4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14.3%, '국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가 11.4%, '한의사도 의사이므로 사용 가능하다' 11.4%, '한의학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일이다'에 1.4% 순이었다. 15.7%는 '단,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이 있다면 찬성하겠다'고 답하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한의사의 '전문성 부족'이 37.0%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의 진료행위를 벗어난 행위이다'에 31.5%, '한의학의 본질에 벗어난 것이다'에 25.1%, '한의사의 과학성이 부족하다'가 5.4%, '한의학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이다'가 1.0%로 답하였다(구간내 복수 응답)(Table 6).

Table 5.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diagnosis of TKM

인식	응답자 (%)	인식의 이유	응답자수 (%)
인정한다	87(42.2)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39 (45.4)
		맞춤 진단이 가능하다	32 (37.2)
		사람이 직접 진단한다	8 (9.3)
		기타	7 (8.1)
		합계	86(100.0)
인정하지 않는다	119(57.8)	체질진단을 불신한다	68 (49.3)
		오차가 크다	56 (40.6)
		전체 진단은 무의미한 기준이다	8 (5.8)
		기타	6 (4.3)
		합계	138 (100.0)
합계	206(100.0)		224 (100.0)

Table 6.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the usage of modern medical equipments by TKM doctors

인식	응답자수(%)	인식의 이유	응답자수 (%)
찬성한다	83 (40.9)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	32 (45.8)
		사전교육이 있을시 찬성한다	11 (15.7)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10 (14.3)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	8 (11.4)
		한 의사도 의사이므로 사용 가능하다	8 (11.4)
		한의학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1 (1.4)
합계			70(100.0)
반대한다	120(59.1)	한 의사의 전문성 부족하다	34 (37.0)
		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벗어난 행위이다	29 (31.5)
		한의학의 본질에 벗어났다	23 (25.1)
		한 의사의 과학성이 부족하다	5 (5.4)
		한의학의 한계점을 인정한 것이다	1 (1.0)
합계			92 (100.0)
합계	203(100.0)		162 (100.0)

### 6. 한약 치료에 대한 인식

한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 54.5%, ‘부정적’ 45.5%로 나타났다. ‘한약이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의대생 중, 긍

정적인 이유에 대해, ‘일상적인 약이다’가 28.2%, ‘개인 체질 맞춤 처방 가능하다’에 21.4%, ‘임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18.8%, ‘부작용이 적다’가 16.2%,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다’에 12.0%, ‘기타’ 3.4% 순으로 응답했다.

Table 7.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traditional herbal medicine

인식	응답자수(%)	인식의 이유	응답자수 (%)
긍정적이다	110(54.5)	일상적인 약이다	33 (28.2)
		개인 체질 맞춤 처방 가능하다	25 (21.4)
		임상 효과가 있다	22 (18.8)
		부작용이 적다	19 (16.2)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14 (12.0)
		기타	4 (3.4)
합계			117 (100.0)
부정적이다	92(45.5)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81 (33.5)
		안전성을 믿지 못한다	63 (26.0)
		부작용이 많다	41 (16.9)
		임상 효과가 적다	38 (15.7)
		보험 적용이 안 된다	13 (5.4)
		기타	6 (2.5)
합계			242 (100.00)
합계	202(100.0)		359 (100.0)

Table 8.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acupuncture

인식	응답자수(%)	인식의 이유	응답자수 (%)
긍정적이다	165(79.7)	치료 효과가 있다	127 (58.3)
		시술이 간편하다	37 (17.0)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37 (17.0)
		휴대가 간편하다	9 (4.0)
		기타	8 (3.7)
		합계	218 (100.00)
부정적이다	42(20.3)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27 (41.5)
		일시적 치료 효과이다	11 (16.9)
		장기 및 조직 손상 위험이 있다	10 (15.4)
		치료 효과가 없다	7 (10.8)
		감염의 위험이 있다	7 (10.8)
		기타	3 (4.6)
합계	65 (100.0)		
합계	207(100.0)		283 (100.0)

‘한약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살펴 보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가 33.5%, ‘안전성을 믿지 못한다’가 26.0%, ‘부작용이 많다’가 16.9%, ‘임상 효과가 적다’가 15.7%, ‘보험 적용이 안된다’ 5.4%, ‘기타’ 2.5% 순으로 답했다(구간내 복수 응답)(Table 7).

### 7. 침 치료에 대한 인식

침에 대한 인식은 79.7%가 긍정적으로, 20.3%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침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유는 ‘치료 효과가 있다’가 45.87%, ‘시술이 간편하다’와 ‘임상경험이 축적되어 있다’가 각각 16.97%, ‘휴대가 간편하다’가 4.0%, ‘기타’ 3.7% 순으로 선택했다.

침을 부정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가 41.5%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치료 효과가 일시적이다’가 16.9%, ‘장기나 조직 손상 위험이 있다’ 15.4%, ‘치료 효과가 없다’가 10.8%, ‘감염의 위험이 있다’ 10.8%, ‘기타’ 4.6% 순으로 선택하였다(구간

내 복수 응답)(Table 8).

### 8. 전체적인 한방 치료와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

전체적으로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가 63.9%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이다’와 ‘부정적이다’는 각각 18.3%, 17.8%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는 72.1%가 긍정적으로 선택하였고, 27.9%가 부정적이라 선택하였다(Table 9).

Table 9. Recogni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on general TKM treatment and cooperative system of Western medicine and TKM

단위: 명(%)

인식 정도	긍정적이다	보통이다	부정적이다	합계
한방 치료	38 (18.3)	132 (63.9)	37 (17.8)	207 (100.0)
양·한방 협진	147 (72.1)	-	57 (27.9)	204 (100.0)

Table 10.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TKM

세부사항	응답자수 (%)
보완대체의학으로 흡수	117 (33.2)
고 한의서 문헌을 현대에 맞게 과학적으로 재해석	70 (19.9)
한의학 특성을 가진 진단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객관화	67 (19.0)
국가적 노력과 지원	44 (12.4)
의료보험의 확대 추진	30 (8.5)
한·양방 용어 대응	19 (5.3)
기타	6 (1.7)
합계	353 (100.0)

### 9. 한의학의 발전 방향

향후 한의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33.2%가 ‘보완대체의학으로 흡수’를 선택하였고, ‘고한의원 문헌을 현대에 맞게 과학적으로 재해석’에 19.9%, ‘한의학 특성을 가진 진단 의료기기의 개발을 통한 객관화’에 19.0%, ‘국가적 노력과 지원’ 12.4%, ‘의료보험 확대 추진’ 8.5%, ‘한·양방 용어 대응’ 5.3%, ‘기타’ 1.7% 순으로 응답하였다(구간내 복수 응답)(Table 10).

## IV. 고찰

본 연구는 한의대생과 고등학교 때까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의대생이, 그리고 의료현장에 활동하지 않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래의 의사들이 인식하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 4개 의과대학 재학생 208 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하였다.

의대생들도 현대인들이 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듯이, 67.8%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는 한의학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설문자의 60.7%가 응답하였으나, 한의학 기초이론에 대한 지식을 물었을 때, 보통이상은 28.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의대생들이 한의학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대생들의 한방치료 경험은 81.7%로 나타났고, 한방치료 경험으로는 침, 뜸, 부항이 47.0%, 한약 46.5%로 거의 주를 이루었다.

한의학 진단법에 대해서는 한의학의 장점인 인체를 전체 개념에서 진단하고, 각 개인별 체질 및 증상에 따른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높은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한의학 진단 이론의 정당화일 뿐이고, 개인별 오차가 크다는 것이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한의학 진단법에 대하여 57.8%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인식과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59.1%가 반대하였다. 한의학 진단에 대한 다른 조사<sup>8)</sup>에 의하면 의사들은 한의학의 여러 부문 중에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진맥, 진단 기법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Likert 식 5점 척도(강한 부정 1점~강한 긍정 5점)에 의한 조사에서 진맥 인식도 1.9744, 한방의 진단 기법 2.1026으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일반 인들도 진맥에 대하여 42.2%가 비과학적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66.2%가 찬성, 31.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 갈등<sup>2,4,5)</sup>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한의계는 한의학 원리에 맞는

진단기기 개발에 노력을 하여야겠다는 판단이 든다.

의대생들이 주로 경험한 한방치료의 주 수단인 한약과 침에 대한 인식 태도를 분석하였다.

의대생들의 54.5%는 한약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45.5%는 부정적이었고, 반면에 침은 79.7%가 긍정적이고, 20.3%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한약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약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와 각 개인의 증상에 따른 처방이 가능한 장점이었고, 침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부정적 인식으로는 한약이 약리학적으로 과학성(33.5%)과 안전성(26.0%)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고, 침 역시 과학적 증명 부족(41.5%)이 큰 요인이었다. 결론적으로 한약, 침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의대생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의대생들의 침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한약에 대한 낮은 인식은 의사들 대상 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의사들도 여러 한방치료 중 효과가 있는 치료법으로 침 79.0%, 한약(보약) 30.1% 라고 조사<sup>1)</sup>되었다. 또 Likert식 5점 척도(강한 부정 1점~강한 긍정 5점)에 의한 조사에서 침은 2.7436의 높은 신뢰도 인식<sup>9)</sup>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의대생, 의사들 모두 침, 한약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지만, 침 효과에 대해서는 높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의대생들의 한의학 전체에 대한 인식 혹은 신뢰도가 긍정(18.3%)도 부정(17.8%)도 아닌 보통상태(63.9%)를 유지하고 있으나, 의사 대상 조사<sup>110)</sup>에서는 오히려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인식이 70.0%~74.4%사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대 교육과정에서 중립적인 보통을 유지하다가 의사가 된 후 의료 현장에서의 한의학에 대해 정반대의 부정적 인식으로 변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 의대생 중에 72.1%가 한·양방 협진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한·양방 협진을 위한 상호 관계 설정에서는 양방위주의 인식이 강하였다. 즉 다른 조사<sup>7)</sup>에 의하면 의대생들은 한·양방의 동등한 동시 협진의 경우 11.7%만이 찬성하였고, 양방치료가 주가 되고 보완적인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85.5%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직 협진을 수행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의대 교육이나 의사들의 인식이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sup>11)</sup>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동일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 한·양방 동등한 협진 형태에 대해 32.8%만이 바람직한 체계라고 하였고<sup>12)</sup> Likert식 5점 척도조사에서도 2.61의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sup>13)</sup>. 양방치료가 주가 되고 보완적인 한방치료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60.6%가 가장 바람직한 양·한방 상호 보완체계라고 답변하였고<sup>12)</sup>, Likert식 5점 척도조사에서는 4.01의 아주 강한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sup>13)</sup>. 즉 의대생들도 의사들과 같이 양방치료가 주가 되고 보완적으로 한방치료를 하는 체계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의대생이 생각하는 한의학의 발전에 대한 태도는 보완대체의학의 위치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가장 많았고, 기존 한의서에 있는 내용을 현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재해석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한의학적 진단 및 평가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한의학의 모든 요소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는 현재 제도상에서 바라는 한의학의 위치도와 한의학의 과학화 및 객관화에 대한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설문 구성을 처음부터 세밀하게 하지 못한 면이 있어,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더 추가 분석이 어려웠고, 또 동일 설문지를 통해 한의대생과의 비교 조사를 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의대생들은 한의학 전반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의 상태에 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인식은 의사들과 유사한 형태를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결과만으로도 의과대학생과 한의과대학생이 상대방 의학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앞으로 한의학의 진단의 객관화 문제와 각종 치료 기술에 대한 과학화 연구는 끊임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의계 내부에서는,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기존 한의사 보수 교육을 개선하고, 외부적으로는 의학계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객관화, 과학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V. 결론

2009년 4월부터 5월까지 4개 의과대학 재학생 208명으로부터 한의학에 대한 경험과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인식을 설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한의학 지식을 TV나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으며, 본인 스스로는 한의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의학의 진단방법에 대해서 57.8%가 부정적이었으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59.1%가 반대하였다.
3. 한약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54.5%, 부정적인 인식이 45.5%를 보였고, 부정적인 주원인은 한약의 과학성(33.5%)과 안전성(26.0%)에 대한 근거 부족이었다. 반대로 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높은 긍정 인식도(79.7%)를 보였다.
4. 한방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은 긍정(18.3%)도 부정(17.8%)도 아닌, 중립적인 보통(63.9%)이라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었고, 양·한방 협진에 대해서는 72.1%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5. 향후 한의학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완대체 의학으로 흡수되어야 한다는 인식(33.2%)

을 보였고, 한의학의 과학화(19.9%)와 객관화(19.0%)를 중요시하였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처방 과학적 근거기반 구축사업(K13030)에서 게재료와 심사비를 지원받았다.

## 참고문헌

1. 이언숙, 서홍관, 김철수, 김일수. 한의학과 양·한의학 일원화에 대한 양의사의 인식도. 가정의학회지. 1999;19(8):662-669.
2. 문성호. 정부, 깊어지는 의-한 갈등 중재 나섰다. 청년의사. 2013.04.05.
3. 강애란. 의사 vs 한의사, '고운맘카드' 공방전 심화-한의원 사용 확대여부 첨예한 대립. 데일리메디. 2013.03.19.
4. 이효정. 의대생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철회하라'. 메디파나뉴스. 2013.04.03.
5. 장원주.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안돼. 헌법재판소 결정. MK뉴스. 2013.03.07.
6. 권영규, 이현지. 한·양방협진에 대한 의료전문직의 태도.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1):10-14.
7. 정인숙, 임병목, 이원철. 한·양방협진에 대한 의·한의·간호대학생의 태도 비교.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10;14(1):25-35.
8. 이동희, 류규수. 한양방 협진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병원경영학회지. 1998;3(1):34-61.
9. 강병조, 채병진, 권도훈, 김풍택, 김재식. 양방과 한방에 대한 인식 조사. 생물치료정신의학. 1999;5(2):158-166.
10. 이은주, 박한솔, 이소영, 배다정, 이탁근, 신현규. 대학부속병원 근무 의사들의 한의학에 대한 인식.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12;26(5)

:773-777.

11. 민현주, 류지선, 윤영주. 한·양방 협진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변화 -국내 문헌에 대한 체계적 고찰-. 대한예방의학회지. 2012;16(1):15-29.
12. 박종구, 김춘배, 조경숙, 최서영, 이종찬, 이선동, 전세일, 김중호. 양·한방 상호보완 방

안에 관한 인식도 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000;10(4):57-74.

13. 류지선, 임병목, 조병만, 이원철, 윤태호. 협진병원 근무 의사들과 종합병원 근무 의사들의 양·한방 협진에 대한 인식도. 대한예방의학회지. 2009;13(3):29-41.